

귀어인구 3명 중 1명 전남으로 온다

지난해 345가구 502명 3년 연속 전국 최다... 40대 이하 절반 어업 소득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어장 74% 보유 한몫

전남 어촌으로 돌아온 귀어인구가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은 양식어장이 전남지역에 많이 들어서 있는 등 수산업 경쟁력이 타지역보다 뛰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남지역 귀어인구는 345가구, 502명이었다. 2014년엔 280가구, 2015년엔 343가구(500명)였다.

정부 공식통계 발표 후 전남은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전국 귀어인구 중 3분의

1이상(2016년 37.1%, 2015년 34.6%)이 전남으로 향한 것이다.

전남 다음으로 지난해 귀어인구는 많았던 곳은 충남(286가구)이었고, 이어 경남(83가구), 전북(76가구)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929가구, 1338명이 귀어해 2015년(991가구·1446명)보다는 감소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귀어인구 502명 중 203명이 수도권에서 왔고, 광주에서는 89명이 전남 어촌을 향했다. 어촌에 살지 않던 전남사람 119명은 어촌으로 삶의 터전

을 옮겼다.

귀어인(358명)은 50대가 113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89명), 30대(76명), 60대(58명) 순이었다.

귀어인 10명 중 3명(30%)은 어업·수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겸업)을 함께 하고 있었다.

전남지역 귀어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어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식어장을 전남이 74% 보유하고 있고, 수산물 생산량도 전국의 52%를 점유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흥군에서 신규 양식장 560ha를 개발해 귀어인에게 양식장 이용권을 우선 제공하는 등 진입 장벽 해소 노력을 펼친

것도 귀어인 증가에 한 몫 했다고 전남도는 평가했다.

전남도는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춰 귀어인을 적극 유치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 ▲귀어·귀촌 전진대회 개최 ▲귀어·귀촌 우수 시군 시상 등 귀어 활성화 시책도 귀어인을 전남으로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다고 보고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 귀어인은 40대 이하가 54%를 차지해 전국 평균(49%)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젊은 귀어인들이 전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많은 도시민이 전남 어촌에서 꿈을 실현하도록 안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형 참여혁신모델 발굴 필요”

윤장현시장, 하승창 인수위 간사 면담서 밝혀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30일 “광주목소리를 고스란히 전달할 ‘광주형 참여혁신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하승창 국민인수위원회 간사(대통령비서실 사회혁신수석)와 면담을 갖고 “지난 5월 광주 마을공동체 100개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시민총회’는 광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국민의 참여·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민인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전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제5회 광주시

민의 날 기념로 시민정치 페스티벌’ 광주 시민총회에서 제안된 10대 정책 중 ‘광화문 1번가’ 제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13개 정책을 제출했다.

이날 광주시는 ▲의무교육 대상자 대중교통 무상 이용 조례 제정 ▲시민의 권리로서의 ‘광주 청년배당’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 등 13개 정책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하승창 간사는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들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광주를 찾았다”면서 “이 자리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토대로 지역 지원 방향 등을 고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역발위 ‘권역별 현안 토론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재봉)는 지난 30일 광주 프라도호텔에서 ‘권역별 현안토론회’를 열고 광주일보를 비롯한 중부·호남·제주권 우선지원대상 일간지 10개사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우호협력 체결 10주년’ 중 우한시 방문

의료기관설명회·5개 기관 협약

‘광주-우한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 박병호 행정부시장, 이은방 시의회 의장 등 광주시 대표단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를 다졌다.

우한시 초청을 받은 광주시 대표단은 ‘광주-우한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하고, 5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과 의료기관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중부지역과의 협력 다변화 등을 논의했다.

또 공무원교육원, 시립미술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 광주미술협회 등 5개 기관과 우한시 행정학원, 미술관, 공상업연합회, 여우협회, 문학예술계연합회 간 우호증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박병호 부시장은 리셉션에서 “광주시와 우한시는 인연을 맺고 10년간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믿음직한 관계로 발전했다”며 “앞으로 경제, 문화, 관광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가뭄 벼농사 포기 논 변동직불금 지급을”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벼 고사(枯死) 등 가뭄 피해에도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을 가뭄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에 가뭄 피해 면적을 예외적으로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전남도는 물 부족으로 모내기를 못한 논과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된 면적 등 2000여ha에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가능토

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 값이 목표가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16년산의 경우 ha당 211만원이 지급됐다. 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다. 고정 아닌 변동 직불금으로 지급할 경우 소득 보전금액이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지난달 말 현재 전남지역 벼 가뭄 피해 면적은 총 1800여ha다. 물 마름 948ha, 위조(시들) 286ha, 고사 566ha 등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224억 들여 체육시설 우레탄 트랙·인조잔디 교체

27곳 친환경시설로

전남도는 올해 224억원을 들여 전남지역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성 우레탄 트랙과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성 시설 개보수 관련 국비 108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 중 90억원을 우레탄 트랙에, 18억원을 인조잔디 교체에 활용한다. 도는 여기에 지방비 116억원을 추가해 총 224억원을 투입, 유해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36곳 중 21곳, 인조잔디 6곳

모두를 교체할 예정이다. 나머지 우레탄 트랙은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 개보수할 방침이다.

우레탄 트랙 등에서 납 등 유해성 성분이 검출되면서 전남지역은 22개 시군별로 인조잔디에 의뢰해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다. 인조잔디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우레탄 트랙 전체 60곳 중 36곳(60%), 인조잔디 67곳 중 6곳(8.9%)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공항 이용객 10명중 8명 “제주 갑니다”

김포공항 승객 13% 그쳐

광주공항 이용객 10명 중 8명(80%)은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광주공항 이용객 72만 2958명 중 제주행 승객은 86.9%인 62만 8297명으로 집계됐다.

또 김포공항 승객은 9만 4661명(13.1%)에 그쳤다.

지난해 제주와 김포행 이용객은 전체 161만 3775명 중 각각 135만 1209명과 26만 2566명으로 83.7%와 16.3%였

다.

2015년은 77.9%와 22.1%였으며 2012년에는 62%와 38%였다.

제주행 승객은 꾸준히 늘어 2013년 82만 6000여명에서 2014년 98만여명, 2015년 125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편당 이용객도 김포와 제주는 각 105명과 163명으로 제주행 비행기가 김포행보다 승객을 30% 이상 더 태우고 다녔다.

한편 전에는는 지난 30일 광주에서 제주행 신규 2편을 취항, 제주노선은 17편으로 늘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ENJOY FUTURE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과정 추가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 2017. 5. 15(월) ~ 7. 14(금) 18:00

입학 전형 | 2017. 7. 22(토), 필답고사(모의토익) / 면접고사

기초과목 수업기간(K-MBA) | 2017. 8. 14(월) ~ 8. 26(토)

합격자 발표 | 2017. 7. 28(금) 15:00

개강일 | 2017. 8. 28(월)

구분	학위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비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MBA)과정	Global MBA(주간, 야간 및 주말)	00명	영어 및 한국어
		K-MBA(야간 및 주말) : 한국형 MBA	00명	한국어
		계	100명	

문의전화 | 062-530-1501~2 자세한 내용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mba.jnu.ac.kr> 참조